

<차관 동정>

국토부, 중남미 11개국과 주택도시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16(화) 손병석 차관, 미주개발은행(IDB) 및 중남미 11개국과 주택·도시계획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

-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파나마 주택국토부 ‘후안 마누엘 바스
께스 곤살레스 (H.E. (Mr.) Juan Manuel Vasquez Gonzalez)’ 차관
및 도미니카(공) 주거지역개발부 ‘시나 델 로사리오(H.E. (Ms.)
Sina del Rosario)’ 차관 등,
 - 11개국 17명*의 중남미 고위공무원과 IDB 관계자 등 총 24명과
16일(화) 14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,
 - * 11개국(알파벳 순, 아르헨티나·브라질·칠레·콜롬비아·코스타리카·도미니카(공)·에콰도르·
온두라스·파나마·페루·우루과이) 17명
 - 중남미의 국토·도시 및 주택정책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민관협력
투자개발사업(PPP)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
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
 - 이 자리에는 온두라스 ‘비르히리요 빠레데스 프라페로’ 대사,
파나마 ‘루벤 E. 아로세메나’ 대사, 우루과이 ‘루이스 F. 이리바르네
레스뚜씨아’ 대사 등 주한외교단 5명*도 자리를 함께 했다.
 - * 주한대사 3(파나마·온두라스·우루과이), 주한외교관 3(콜롬비아 특명전권공사·
도미니카 참사관·에콰도르 영사)
 - 손 차관은 “국토부는 미주개발은행(IDB)과의 MOU 체결(‘15년)
이후 국토부 장·차관의 IDB 총재·부총재 면담 및 IDB와의

공동초청연수('17~'18년 3회) 등 중남미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,

- 오늘 간담회가 토지이용계획, 도시재생, 맞춤형 주거공급정책, 스마트시티 개발, 하천 관리,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"고 말했다.
- "특히, 체계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국토 및 공간정보 구축, 토지평가 및 수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- 향후 한국-중남미 간 도시 인프라 건설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- 이와 관련하여, 손 차관은 이 자리에 함께 한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'18.6.27 공식 출범)를 소개하며,
- "투자개발사업(PPP) 방식의 인프라 개발이 많은 중남미에서 앞으로 KIND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"라고 전했다.

2018. 10. 16. (화)

국토교통부 대변인